



고진영

# 고진영 뜬다...해외파 반격 기대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뚫고 재개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는 3개 대회째 해외파와 국내파 대결 양상이다.

앞서 KLPGA 챔피언십과 E1 채리티 오픈에서는 국내파의 완승.

박현경(20)과 이소영(23)이 차례로 우승하면서 세계랭킹 20위 이내에 이름을 올린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와 일본 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강호들을 제쳤다.

세계랭킹 3위 박성현(27), 6위 김세영(27), 10위 이정은(24), 13위 김효주(25)에 일본 상금왕 출신 안선주(33), 이보미(32), 그리고 일본에서 작년에 만 2승을 올린 배선우(26)도 힘을 쓰지 못했다.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제주 서귀포시 롯데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 스카이·오션 코스(파 72)에서 열리는 KLPGA투어 롯데칸타타여자오픈은 해외파의 반격이 예상된다.

특히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이 6개월 만에 공식 대회 출전 무대로 롯데칸타타여자오픈을 선택해 수성을 노리는 국내파를 긴장시키고 있다.

작년 11월 LPGA투어 시즌 최종전 CME 투어 챔피언십 이후 공식 대회를 치르지 않은 고진영은 LPGA투어 개막이 자구 미뤄지자 더는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KLPGA투어 대회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박성현과 치른 현대카드 슈퍼매치에

KLPGA 롯데칸타타 4일 개막

2개 대회 연속 국내파가 완승

김세영·이정은·김효주도 우승 벌려

홍코스 이소영 2주 연속 챔프 도전

서 여전한 컴퓨터 샷을 선보인 고진영은 작년 10월 하이틴진로 챔피언십 제패 이후 8개월 만에 KLPGA투어 통산 11번째 우승을 노린다.

E1 채리티 오픈에는 불참했던 김세영과 앞서 2개 대회에서 10위 이내 진입에 실패한 이정은, 그리고 대회가 열리는 롯데 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이 홈 코스나 다름없는 김효주도 우승을 베풀다.

LPGA투어 통산 9승을 올린 최나연(33)과 LPGA투어 통산 5승 가운데 3승을 최근 3년에 따낸 지은희(34)도 가세했다.

폭발적인 장타력을 앞세워 올해 LPGA투어 신인왕에 도전장을 낸 미국교포 노예림(19)도 해외파에 힘을 보탠다.

이런 해외파의 거센 도전에 맞서는 국내파의 선봉은 2주 연속 우승을 노리는 이소영이다.

3개 대회밖에 치르지 않았어도 KLPGA투어에서 상금, 대상 포인트, 평균타수 1위를 쟁찬 이소영은 원래 빼어난 아이언샷은 더 날카로워지고 약점

으로 꼽던 그린 플레이는 이전과 확 달라져 새로운 일인자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소영은 이번 시즌 3차례 대회에서 4위-4위-우승의 고공 행진 중이다.

이소영은 코로나19로 투어가 중단된 지난 4월 롯데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에서 열흘 동안 합숙 훈련을 했다.

5년째 롯데 후원을 받는 이소영은 그렇지 않아도 이 코스에서 자주 라운드를 했기에 코스 구석구석이 훤히 다. 오션 브레이크가 심한 그린 역시 이소영은 잘 안다.

E1 채리티 오픈에서 나흘 동안 선두를 내주지 않은 채 우승까지 내달렸던 이소영은 더 많은 현지 연습을 위해 비행기 예약을 앞당겨 제주로 날아올 만큼 의욕적이다.

임희정(20)의 기세도 예사롭지 않다.

작년에 3승을 쓸어 담으며 신인 돌풍의 주역으로 등장했던 임희정은 이번 시즌 3차례 대회에서 7위-준우승-3위라는 성적이 말해주듯 늘 우승 경쟁을 벌였다.

KLPGA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E1 채리티 오픈 컷 탈락의 아픔을 겪은 박현경, 앞선 대회에서 예열을 마친 최혜진(21)과 작년 롯데 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에서 짜릿한 역전 우승의 기억이 생생한 조아연(20)의 반등 여부도 관련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연합뉴스



이소영

## ‘부전자전’ 존 델리 아들 비거리에서 아버지 능가

왕년의 장타왕 존 델리(미국)가 아들 존 주니어(16)의 장타력이 이미 자신을 앞질렀다고 밝혔다. 델리는 최근 미국 연예 전문 매체 TMZ와 인터뷰에서 “비거리에서는 이제 아들을 따라가지 못한다. 어찌나 강하게 불을 때리는지 모른다”면서 “300야드에서 305야드를 날린다”고 말했다.

델리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사상 처음으로 시즌 평균 드라이버샷 비거리 300야드 시대를 열었고, 한동안 장타왕을 놓치지 않았다.

클럽이 등에 달을 듯 큰 백스윙과 강력한 몸통 스윙은 델리의 트레이드마크다.

아들 존 주니어는 지난달 28일 인디애나주 카멜의 크록트 스틱 골프 클럽에서 열린 다이 내셔널 주니어 인비테이셔널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크록트 스틱 골프 클럽은 1991년 존 델리가 우승한 PGA 챔피언십이 열렸던 곳이라 존 주니어의 우승 경쟁은 지역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존 주니어는 지역 신문 인디애나폴리스 스타와 인터뷰에서 “우승했으면 좋았겠지만, 아직 시간이 많다”면서 “3퍼트가 몇 번 나온 걸 보면 플레이가 아주 좋았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레이스 앞두고 설레는 영암 2일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KIC)에서 열린 2020시즌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공식 테스트에서 슈퍼 6000 클래스 머신들이 연습 주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두차례 개막이 연기됐던 2020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이날 20일~21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KIC)에서 무관중으로 개막전을 갖는다. /연합뉴스

## 여자배구 ‘비대면’ 외인 선발 라자레바·루소·몬타뇨 주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럽 여자배구리그는 큰 타격을 입었다.

한국 프로배구 V리그도 코로나19 확산 위험 탓에 2019-2020시즌을 조기에 종료했지만, 안정적인 다음 시즌을 준비 중이다.

V리그의 안정감은 코로나19 시대에 더 빛을 받는다.

4일 오후 2시 열리는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도 각국 현역 국가대표로 뛰는 선수들의 이름이 보인다.

3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74명의 여자 선수들이 드래프트 신청서를 제출했다.

KOVO는 여자부 6개 구단의 평가를 종합해 드래프트 참가자 45명을 확정했다. 지난 시즌 V리그에서 뛴 발렌티나 디우프(KGC인삼공사), 메레타 리츠(GS칼텍스), 루시아 프레스코(흥국생명), 헤일리 스펀만(등록명 헤일리-현대건설) 등 4명과 구단 평가 상위 41명(공동 40위 2명)이 이번 드래프트에 참여한다.

지난달 15일 열린 남자부 드래프트처럼 여자부 외국인 선발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여자부 6개 구단이 가진 정보는 비슷하다. 구슬 확률 추정으로 지명 순서가 정해지면 구단은 모험과 안정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인삼공사는 디우프와 재계약했다. GS칼텍스도 리츠와의 재계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른 4개 구단은 ‘지환과’와 ‘새 얼굴’ 사이에서 고민해야 한다.

처음 V리그 문을 두드리는 선수 중에서는 러시아 국가대표 안나 라자레바가 가장 주목받는다. 23살의 젊은 라이트인 라자레바는 공격력과 블로킹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터키리그 베스트’ 출신의 레프트 헬렌 루소(벨기에)는 공수가 가장 안정된 선수로 꼽힌다.

많은 관계자가 라자레바와 루소를 1, 2순위 지명이 유력한 선수로 평가했다.

인삼공사에서 활약한 마렐리에네 몬타뇨의 동생이자 스웨덴리그 득점 1위 이보네 몬타뇨(폴로비아)도 V리그 입성을 노린다. /연합뉴스

## ‘배구 여제’ 김연경 국내 복귀할까

흥국생명과 협상 가능성...관건은 대우

세계적인 레프트 김연경(32)이 한국프로배구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한국프로배구 V리그 복귀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김연경 에이전트는 1일 “김연경 선수의 V리그 흥국생명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맞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혹사라도 흥국생명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밝혔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한국배구연맹(KOVO)으로

부터 김연경 선수가 흥국생명 복귀 가능성은 언급했다는 건 들었다. 그러나 선수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도 선수 의사를 알고 싶다. V리그에 복귀하면 우리 구단으로 와야 하니 선수 입장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김연경은 한국 무대에 돌아오고 싶은 의사를 몇몇 곳에 드러냈다. 곧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연경은 2005년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그리고 2009년 일본 JT 마블러스로 이적했다.

당시 흥국생명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지 못한 김연경을 ‘임의 탈퇴’로 묶고, 일본 진출을 허락했다. 이후 김연경은 2011년 터키 페네르바체로 이적했고, 이후 페네르바체와 재계약을 할 때 에이전트 인정 여부, 계약 기간,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등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연경은 올해 5월 터키 여자사바시와의 계약이 끝나 국제무대 FA가 됐다. 그러나 V리그에서는 흥국생명 임의탈퇴 선수다.

규정상 V리그로 돌아오려면 흥국생명이 임의탈퇴를 해제해야 한다.

김연경의 기량은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이다.

그러나 터키, 이탈리아 등 여자프로배구 최정상급리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운영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김연경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오랜 국외 생활을 한 김연경도 V리그에서 한국 팬들과 호흡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관건은 ‘대우’다. 2020-2021시즌 여자프로배구 구단 샐러리캡은 옵션을 포함해 23억 원이다. FA 시장에서 이다영을 영입하고, 이재영과 잔류 재계약한 흥국생명은 두 쌍둥이 선수에게만 총 10억 원 을 투자했다.

김연경의 명성에 어울리는 연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구단의 결단이 필요하다.

김연경 측과 흥국생명 구단은 “만나서 논의하고 싶다”고 했다. 무척 어렵지만, 꼭 풀어야 할 숙제를 사이에 두고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쳐야 한다.

보유권을 소유한 흥국생명이 김연경을 포기할 리는 만무하다. 협상은 이제 시작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랑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인더워터
3관	그집, 톰보이
4관	더 플랫홈
5관	프린스 이스케이프
9관	위대한 쇼맨, 미스비헤이버
7관 씨네커를	하이큐!! 또 다른 도전 레미: 집 없는 아이, 날씨의 아이 오퍼나지: 비밀의계단
8관 씨네커를	아홉 스님, 초미의 관심사 호텔 레이크

기획전시 최대주 感應動通 2020. 5.21.(목) ~ 6.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 포커스 선우정아 콘서트 2020. 6.14.(일) PM 5: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포커스4 판소리 1인극 <방탄소년단> 2020. 7. 3.(금) ~ 4.(토)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